

## 국토부, 항공물류 활성화 추진

### 운송네트워크 강화등 물동량 수요예측시스템 구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내의 물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를 항공물류 강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항공물류 발전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항공물류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항공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운송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천공항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항공물동량 수요예측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화물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은 수요 분석을 통해 순차적으로 화물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원활한 화물처리를 위해 인천공항 내 화물터미널 증설을 추진하고 글로벌 기업을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2단계 공항 배후 물류단지 533천㎡를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항공사, 항공화물 주사업체 등 물류기업에게 물동량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양 공항공사, 교통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수요 예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인천공항 배후 물류단지 확

강화를 위해 물류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맞춤형 물류시설을 제공하며, 중점유치 기업군을 선정하여 집중 유치를 나갈 계획이다.

그간 외국기업에게만 적용해 왔던 투자금액에 따른 토지 임대료 감면(500만불 이상 5년간 50% 감면, 1000만불 이상 5년간 100% 감면 등)을 국내기업에게까지 확대하고,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포장·가공을 통해 재반출 하는 물량을 50% 이상 취급하는 입주업체에게는 토지임대료 감면을 2년 연장한다. 또한, 기존 입주업체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300㎡ 이상 증축하거나 250만불 이상 투자 시 3년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

경에 대해, 항공화물은 중량기준으로 전체 수출입물량의 0.2~0.3%에 불과하나 금액기준으로 25%나 차지하여, 고부가가치 화물 수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가입국 중 항공화물 수송 세계 3위, 인천공항이 국제화물 처리 세계 2위 등 양적인 부분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최근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공항시설 확장으로 국가간, 공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0년 272만톤인 국제화물 물동량을 2015년까지 350만톤으로 늘리고, 61.8%인 인천공항 1단계 공항 배후 물류단지 입주율을 100%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 이란 주제로 '2011년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김형식 국무총리(왼쪽)가 기념식에서 박창규 롯데건설(주) 대표이사(오른쪽 첫번째)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건설 유공자들에게 정부 훈·포장을 주고 있다.

## 「제1회 녹색건축 한마당」 개최

### 정보공유 통한 녹색건축 발전방안 모색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 위원장: 김형식 국무총리 · 양수길 민간위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녹색건축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녹색건축 한마당」 행사가 지난 24일 E타워(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6층 그레이스 홀에서 개최됐다. 「제1회 녹색건축 한마당」 행사는 정부 · 산업계 · 학계 · 시민사회가 녹색건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함

께 논의함으로써 녹색건축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것.

이날 행사는 오프닝 메인세션과, 공공정책세션, 비즈니스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제1부인 오프닝 메인세션에서는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의 환영사에 이어 박양호 국토연구위원장이 「저탄소 녹색성장형 국토 · 도시 · 건축 추진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제2부 공공정책 세션에서는 지난 8

일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4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보고한 「녹색건축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녹색건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발표가 있었으며, 제3부 비즈니스세션에서는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우리의 우수 녹색건설 및 녹색건축 사례와 녹색 요소기술의 설계 · 시공 · 마케팅 등의 성공사례를 발표하며, 요소기술 전시회도 함께 진행됐다.

정부는 「제1회 녹색건축 한마당」 행사를 계기로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녹색건축에 대한 업계 및 학계의 최신동향과 정보를 알 수 있는 녹색건축 정보공유의 장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국내 최대 규모 자전거 축제의 향연!

###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킨텍스에서 개최



2010년 세계자전거 박람회 모습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는 2011 세계자전거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최 ·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2011 세계자전거박람회(World Bike Show 2011)」 행사를 추진하고, 오는 9월 21일까지 전시회 참가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1 세계자전거 박람회」는 국내외의 우수한 자전거 관련 기기를 전시, 소개 하며 참가업체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전거에 대한 대국민적 인지도 향상과 문화엔터

테인먼트로서 자전거 보급 확산에 기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전거 박람회이다.

오는 10월 개최될 이번 행사에는 완성자전거, 전기자전거, 부품, 의류 및 장비, 악세사리, 서비스 등 자전거 관련 다양한 제품이 지난해보다 약 1.4배 더 넓어진 공간에서 전시된다. 박람회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2011 세계자전거박람회 홈페이지(www.worldbikeshow.com)를 통해 9월 2일까지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7월 22일까지 조기 신청한 업체에는 참가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킨텍스 전시팀(031-810-8043~4)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최신 댐 내진평가기술 워크숍 개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은 한국지진공학회와 동국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미국의 버클리대(UC Berkeley) 및 개척국(USBR), 일본의 댐기술센터가 후원하는 “최신 댐 내진평가기술 워크숍(Workshop on Advanced Technology for Seismic Dam Safety Evaluation)”(2011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을 한국을 대표하여 후원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지진과 관련하여 한·미·일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을 초빙하여 국가 주요 시설물인 댐의 내진평가기술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최신 접근기법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

해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국내 댐 설계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기관의 주요 기술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심도 있는 강의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날 워크숍은 내진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미 버클리대 Anil K. Chopra 교수의 명강의를 비롯하여 미

개척국, 일본 댐기술센터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최신 해석기법 및 현재 국내 기술 수준과 기준에 대해 국내 기술진들이 통합적으로 접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계기가 되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러한 국외의 선진기법을 국내 댐 안전진단 및 내진평가에 반영하여 댐 안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한국방문의 해 유치관측단 파견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철)와 (재)한국방문의 해위원회(위원장 신동민)는 지난 22일 신성장시장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지사를 개소(사진)하고 이와 연계해 한국방문의 해 유치관측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관광과 문화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잠재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시장을 향후 주요 방문시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인도네시아 관광객은 약 9만 5천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관광비자 발급 간소화와 자카르타 지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관광객 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의 안전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모두가 마음 놓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 이것은 우리모두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안전을 생각하는 기술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민 여러분의 밝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